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61/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1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07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고기 낚기 하자 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나무 베기 하자 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자리 치기 신 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어와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 보자
탈망건 갓 숙이고 홀중치막 띠 끄르고
충만 남은 헌 짚신에 세살부채* 차면(遮面)하고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消日) 조로 가지고서
비슬비슬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 난다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 일 더욱 꿈이로다
㉠ 엇그제는 부귀자(富貴者)요 오늘 아침 빈천자(貧賤者)라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장주 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 꿈이고
한단치보(邯鄲稚步)*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 몽중 흉사(夢中凶事) 이러하니 새벽 대길(大吉) 하오리다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이고
사립문을 드자 할가 마당에를 섰자 하라

철없는 어린아해 소 같은 짧은 계집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양다리 온다 하니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칭 고이하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춘정월 십오야(夜) 상원야 밝은 달에
장안시상 열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호 금준은 다리다리 배반(杯盤)이요
적성 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윗다리 아랫다리 석은 다리 헛다리
철물(鐵物)다리 판자(板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중촌(中村)을 올라 광통다리 굽은 다리 수표(水標)

[A] 다리

효경(孝經)다리 마전(馬廐)다리 아량 위 것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中學)다리 다리 내려 향다리요
동대문(東大門) 안 첫 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남대문 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밝은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수종다리 습다린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두 손길 느러치면 다리에 가까오니
손과 다리 머다 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한 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나 하여 주렴
부끄럼이 묻저 나니 동냥 말이 나오더냐
㉢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제는 공손한 인사로다
내 허리 가이없어 비부(婢夫)에게 절이로다
내 인사 차서(次序)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혼잣말로 중중하니 주린 중 들어온가
그 집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가져가오 불상하고 적객(謫客) 동냥 예사오니
당면하여 받을 제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 그렇저렇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 수운(輸運)하리 아모려나 저 보리라
갓은 숙여 지려니와 홀중치막 어찌할고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라
넓은 소매 구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등 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움는 듯
아모리 굽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머지 아닌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尊前)의 출입(出入)인가 한출첨배* 하는고야
저 주인 거동 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었고
밥 짠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벌긴들 매양 하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삼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자 하고
짚 한 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 보니
조희 노도 모르거든 **삿기 꼬기** 어이하리
다만 한 발 다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니
할 리 없어 내어 놓고 긴 삼대를 베껴 내어
자리 노를 배와 꼬니 천수만한* 이내 마음
부칠 데 전혀 없어 노 꼬기에 부치었다

- 안도환, 「만언사(萬言詞)」

*세살부채: 살이 가느다란 부채.

*한단치보: 한단지보(邯鄲之步).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따라 하면 두 가지 모두 잃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

*남양초려: '남양'은 중국 형주의 지명이며 '초려'는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을 의미함. 남양에서 제갈량은 초려를 짓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잡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렸음.

*화서몽: 황제가 꾸는 꿈으로, 좋은 꿈을 일컫는 말.

*옥호 금준: 옥으로 된 작은 병과 금으로 만든 항아리.

*한출첨배: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조희 노: 종이로 꼰 노끈.

*천수만한: 이것저것 슬퍼하고 원망함. 또는 그런 슬픔과 한.

01.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만인사」는 소설에 삽입될 정도로 당시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작품에 사용된 확장적 서술과 회화화이다. ‘확장적 서술’이란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 내거나, 유사한 상황이나 구절 등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사건 등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의 경우 확장적 서술을 통해 과거 행복했던 서울 생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로의 복귀를 염원하는 심리도 전달하는 한편 화자의 현재 모습을 회화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유배에 처한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어린아해’와 ‘젊은 계집’이 화자를 향해 ‘귀양다리’가 온다며 놀리는 말은 화자의 과거 서울생활이 확장적으로 서술되는 계기가 되고 있군.
- ② ‘춘정월 십오야에 ‘장안시상 열두 다리’를 밟았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화자가 행복을 느꼈던 과거 서울 생활의 일면을 강조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③ ‘수표다리 / 효경다리 마전다리’ 등과 같이 서울에 있는 다리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서울로의 복귀를 바라는 화자의 염원과 관련이 있겠군.
- ④ ‘동대문’과 ‘서대문’, ‘남대문’ 안의 다리에 대한 설명 이후 화자의 다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화자의 현재 상황을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전달하는 효과를 유발하는군.
- ⑤ 손과 다리의 거리가 멀지 않다며 자신을 ‘손’이라고 불러 달라는 화자의 부탁은 유배지로 귀양을 온 화자의 처지를 회화화하여 제시한 것에 해당하겠군.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비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유배를 온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이유로 제시하며 자신이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 화자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며 동냥질에 나선 화자의 부끄러운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신이 등짐을 져야만 하는 처지를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 대구적 표현을 통해 유배지에서 동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 전기의 유배 가사와 달리 후기에 창작된 유배 가사는 일상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이 작품 역시 일상의 모습을 보여 주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를 박대하는 집주인의 모습과 이러한 집주인의 박대로 인해 자신의 밥값을 해야만 하는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화자는 집주인과 마찰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드러난다.

- ① 화자가 ‘고기 낚기’, ‘나무 베기’, ‘자리 치기’, ‘신 삼기’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은 일상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② ‘탈망건’하고 ‘헌 짚신’을 신고 ‘동냥’에 나서는 화자의 모습은 자신의 밥값을 하려는 화자의 노력에 해당하겠군.
- ③ ‘보리 한 말’을 주는 주민에게 치사를 하는 화자의 모습은 유배지 주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동냥을 해 온 화자를 향해 ‘저녁밥 많이 먹’으라고 비웃는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 화자를 박대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화자가 ‘신 삼기’를 위해 ‘짚 한 단’을 가져다가 ‘삿기’를 끄는 것은 화자를 박대하는 집주인과의 마찰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